

마켓픽

중국과 엔비디아에 두 번 맞은 코스피, FOMC 주목

결국 중요한 것은 금리, 한국시간 30일 새벽에 발표될 FOMC에 주목

Strategist 김재승
jaeseung.kim@hmsec.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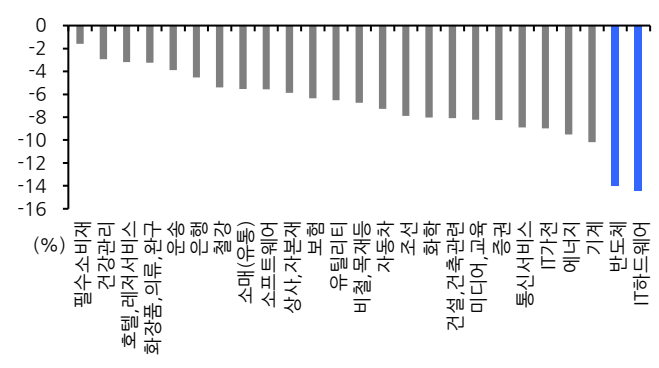
7월 28일 코스피는 전일대비 -10.84% 하락한 6,023.66pt로 마감했다(그림1).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13.39%, -14.65% 하락한 가운데, 한미반도체(-12.22%), 주성엔지니어링(-14.08%) 등 반도체 소부장들도 급락했다(그림2). 중국의 반도체 산업 굴기 우려와 함께 27일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 주가가 -5.0% 하락하는 등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가 -2.2% 하락하면서 반도체 투자가 악화된 영향이다.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급락한 이유로 WSJ이 보도한 엔비디아의 오픈AI에 대한 2,500억 달러 규모의 금융보증(backstop) 제공 협상 소식이 꼽히고 있다. 소프트뱅크의 에너지 자회사인 SB에너지가 미국 오하이오 남부에서 건설중인 10GW 규모 데이터센터 프로젝트는 향후 오픈AI가 장기 계약해 직접적으로 통제·사용할 예정으로 실질적인 사업 주체로 간주되고 있다. 엔비디아가 금융보증을 제공할 경우 개발사는 유리한 조건으로 부채 발행이 가능해진다.

시장은 순환금융(Circular Financing)에 대한 우려를 높이고 있다. 엔비디아가 고객사의 AI 인프라 구축을 직접 지원하는 구조가 AI 산업 전방위로 확대됨에 따라 AI 투자 생태계의 지속가능성과 신용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이퍼스케일러의 CDS 스프레드는 물론(그림3), 엔비디아, 브로드컴 등 반도체 기업들의 CDS 스프레드도 확대되고 있다(그림4). 당분간 시장은 AI 사업의 수익화와 AI 투자 기업들의 재무안정성에 더욱 주목할 전망이다. AI 투자에 소극적이었던 애플이 미국 증시에서 시가총액 1위를 탈환한 점은 시장이 핵심 비즈니스의 경제적 해자와 재무안정성에 얼마나 가중치를 두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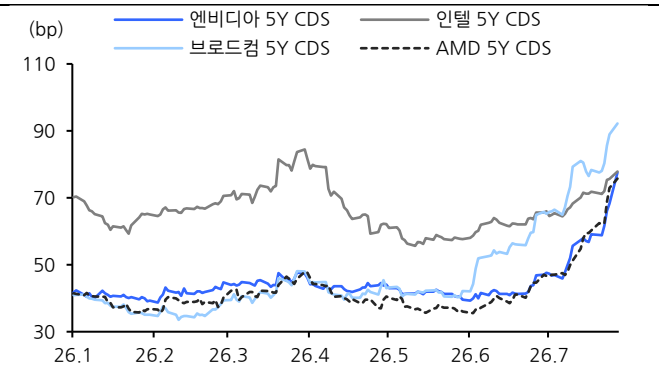
주식 시장의 안도 여부는 오는 30일 새벽에 발표되는 FOMC의 통화정책 결정에 달려있다. AI 수익화 의구심과 순환금융 리스크, 중국 반도체 산업 굴기 부담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이다. 시장이 FOMC와 금리에 주목하는 이유이다. FedWatch에 따르면 현재 미국 금리선물시장에서 오는 7월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확률을 30.5%, 연말까지는 91%로 반영하고 있다(그림5). 연준 기준금리 인상 우려에 브렌트유가 배럴당 85달러 아래로 하락했음에도 미국채 금리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그림6). 긴축적 금융환경은 신용 리스크와 AI 투자 회수 부담을 키운다. 최소한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시장 예측을 차단하는 침묵 전략을 이어가고 있는 케빈 워시 의장이 통화정책 결정과 함께 시장에 방향성을 제시할 지 관심이다. 갑작스러운 기준금리 인상, 내부에서 많은 반대표를 동반한 동결이 나오지 않을지 주목해야 한다. 케빈 워시 의장이 시장을 안심시키고 채권 금리가 낮아질 경우 주식 시장은 반등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 코스피 반도체 업종 중심으로 약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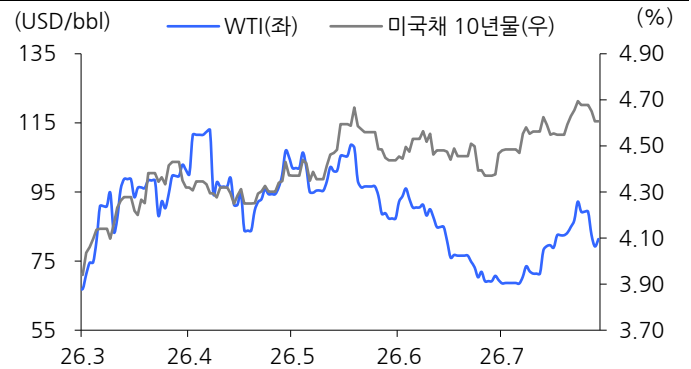
주: 코스피 WICS 26개 업종 기준 7월 28일 일간 수익률
자료: 에프앤가이드, 현대차증권

〈그림 4〉 미국 반도체 기업 CDS 스프레드도 급등



자료: 블룸버그, 현대차증권

〈그림 6〉 유가 하락에도 내려가지 않는 미국채 금리



자료: 블룸버그, 현대차증권

▶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자료 작성자 김재승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는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 본 조사자료는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